

광산구, 장기입원 퇴원자 '행복한 정착' 지원

의료·돌봄·이동지원 등 맞춤형 '재가 의료급여 사업' 진행 '우리동네의원'·'늘행복 건강밥상 협동조합' 수행기관 참여

광주 광산구가 장기입원 했던 퇴원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의료와 돌봄·식사·이동지원 등을 통합한 재가서비스를 진행한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30일 이상 장기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한 뒤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한다.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를 우선 배려한 사업으로,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주거·돌봄 등의 어려움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광산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2021년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그동안 자체 추진했던 '영구입대 늘행복 프로젝트'와 결합해 더 큰 성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구 입대 늘행복 프로젝트는 '늘행복 주치의'를 담당하고 있는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우리동네의원'과 영구입대아파트 주민에게 건강 먹거리를 지원하는 '늘행복 건강밥상 협동조합(건강밥상 협동조합)'이 수행기관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3일엔 우리동네의원, 건강밥상

협동조합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우리동네의원은 협력 의료기관으로, 퇴원자의 재가 생활을 위한 케어플랜 수립, 약물관리, 영양교육, 모니터링, 방문의료 등을 지원한다.

건강밥상 협동조합은 주 2-3회 맞춤형 식사로 대상자의 든든한 끼니를 책임진다. 건강 상태, 질병 여부에 따라 당뇨식, 저염식과 같은 특수식도 제공한다. 늘행복 프로젝트로 쌓은 역량과 노하우가 이번 시범사업과 만나 장기입원 퇴원자의 자립 생활을 돕는 복지 모델로 확장하게 된 셈이다.

광산구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맞춤형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 상황에 따른 돌봄서비스, 재가 복지 후 일상생활 유지와 적응을 밀착 지원한다.

외래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장기입원 생활로 주거 공백이 발생한 대상자는 케어안심주택 등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거주 공간 마련을 돕는 서비스도 진행한다.

이처럼 의료, 식사, 돌봄, 이동, 주거 등이 총괄된 서비스로 광산구는 병상이 아닌 집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로 의료비도



광주 광산구는 지난 3일 광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의원', 늘행복 건강밥상 협동조합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임형석 우리동네의원 원장, 김영숙 늘행복 건강밥상 이사장, 김삼호 광산구청장.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상자 발굴에 들어간 광산구는 내년 6월까지 총 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목표 인원을 조기 달성할 경우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

입원 문제는 돌봄에 부리를 두고 건강은 물론 일상까지 챙겨줄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비해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가 케어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1510 걷기!' '먹었으니 걸어야지'

'행복으路(로) 걷기 광산' 9월 챌린지 확대 운영

광주 광산구가 9월을 맞아 걷기 실천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챌린지를 운영한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걷기 운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행복으路(로) 걷기광산' 챌린지를 확대 운영한다.

15일간 10만 보를 달성하면 선물을 주는 '1510 걷기! 챌린지'를 진행하고, 하루 1만 보 한정을 조건으로 17일까지 10만 보를 먼저 달성한 1100명에게 생활용품꾸러미, 모바일문화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또 10-15일까지 5만 보에서 15만 보를 달성하면 은누리 상품권, 문화상품권, 식사 할인권 등의 푸짐한 선물도 제공한다.

특히 추석 연휴인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먹었으니 걸어야지!'를 주제로 한가위 걷기 페스티벌도 연다. 이 기간 내 5만 보(1일 1만 보 한정)를 달성한 선착순 500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준다.

풍영정과 삼효려 등 지역 내 역사문화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는 이색 챌린지도 마련했다.



건강과환경을 동시에 지키는 '줍깅'(걸으며 쓰레기 줍기) 챌린지와 스탬프 투어도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줍깅은 5000 걸음 달성, 활동사진 게시(워크온 게시판 또는 자신의 SNS)로 참여할 수 있고, 스탬프 투어는 지정된 5개 장소를 방문해 장소별 활동 사진을 게시하면 된다.

챌린지 참여는 광산구 걷기앱 '워크온'에서 '행복으로 걷기광산' 커뮤니티에 가입해야 할 수 있다. 챌린지에 성공해 선물을 받으려면 반드시 '쿠폰받기'를 눌러야 한다. 걷기 챌린지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광산구는 시민 면역력 증진을 위해 '행복으로 걷기광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130여 차례 챌린지를 운영해 6만여 명(중복 포함)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 시민행복동아리, 나눔·기부 '활발'

선별진료소 의료진 응원, 홀몸 어르신에 고추장 선물



광산구 시민행복동아리 '드림봉사단'이 지난 7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의료진들에게 직접 만든 수제청 30개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시민행복동아리 회원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북한 이달 주민과 2세로 이뤄진 '드림봉사단'은 지난 7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쫄면과 직접 만든 수제청 30개를 전달했다.

하남산단에서 일하는 30대 청년 노동자들로 구성된 '어나더보이스'는 목소리 재능기부로 방역수칙과 행복메시지를 담은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었다.

'국제이주문화연구소(자우녕)'은 전통 발효음식인 '단술'을 빚어 광주시 선별진료소와 복지관 등에 전달했고, 경력단절 여성들로 이뤄진 '블링블링 금손'은 수제 수세미를 만들어 이웃과 나눴다. '유쾌한 작당'은 직접 만든 고추장을 안부엽서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선물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일상의 행복을 찾아가는 시민행복동아리의 활동이 이웃과 사회를 확장하며 행복의 선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서부교육청-수완초-시설관리공단 청소년 문화·체육시설 지원

광주 광산구가 관내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초·중·고교생에게 개방하고 체력증진과 문화 활동을 지원한다.

8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7일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 수완초등학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과 관내 학생들의 문화·체육활동 공간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학생의 실외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협약에 참여한 수완초는 과밀학급 문제로 운동장에 임시교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뛰놀 수 있는 야외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협약에 따라 광산구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지역학교 학생의 각종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한다.

개방되는 시설은 ▲빛고을국민체육센터 ▲첨단다목적체육센터 ▲광산농악전수교육관 ▲수완문화체육센터 등 4개 시설이다.

서부교육지원청 등은 학생들이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지역기관과 함께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우즈베크 컴퓨터에 전자제품 전달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선호) '행복공감동행봉사단'이 우즈베키스탄 희망컴퓨터인 '우미드'에 전자제품과 쌀 등을 기부했다.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인 행복공감동행봉사단은 광산지역 특성을 감안해 '다문화'에 맞는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복공감동행봉사단'은 십시일반 모은 성금 등으로 냉장고 1대(150만원 상당)와 백미 9포(20kg)를 전달했으며, 기부한 쌀은 지난 7월 취임한 신선호 이사장이 축하회환 대신 받은 것이다.

이경택 봉사단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 국적 소외 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직원들과 힘을 모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더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미드'는 호남권 우즈베키스탄의 임시 거주시설로, 광산구에만 2488명의 우즈베키스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

손해보험협회